광주경총, 김경찬 작가 초청 금요조찬포럼

"마음속 빈자리 읽어야 설득…'결핍'에 답 있다"

인정욕구 기반 한국인의 정서·'사람 읽는 힘' 강조
영화 스토리텔링에서 경영·마케팅 설득 해법 모색

"한국 사람을 설득하는 스토리텔링의 핵심 키워드는 결핍입니다."

지난 2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제1731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김경찬 작가는 이처럼 밝혔다.

'스토리텔링 이론으로 배우는 설득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영화 '1987'을 비롯해 '카트', '뺑반', '하이재킹' 등 다수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경찬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인의 정서와 스토리텔링, 대중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작가는 먼저 한국인의 일상 언어 속에 담긴 정서를 짚었다.

그는 "만나면 '식사하셨어요'라고 묻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오랜 시간 먹고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이고, 안부이며, 관계의 언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밥이 갖는 의미를 인정욕구와도 연결했다. 김 작가는 "식사 즉 밥은 곧 인정욕구와 맞닿아 있다. 인정욕구가 강한 사회로 한국과 유대인을 들 수 있는데, 두 사회 모두 역사적으로 결핍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이 같은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해야 사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관객이 반응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잘 짜인 구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 안에 결핍과 상실, 그럼에도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워낭소리', '노무현입니다'를 제시했다.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의 남자'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했다. 김 작가는 대중이 한 작품에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흥미나 화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인물들이 품고 있는 결핍과 시대적 억압,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관객의 정서와 맞닿을 때 이야기가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결핍을 읽어내는 것이 영화뿐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와 마케팅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핍을 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정서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있다. 사람들의 마음 속 불편함과 죄책감, 욕망을 읽고 그것을 설득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 스토리텔링과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무조건 베푸는 사람,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의 태도를 구분해 살피는 일이 조직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영화 시나리오 작업 역시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사건을 나열하는 것보다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작가는 "좋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 속 빈자리를 건드린다"며 "그 결핍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가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경영자들을 향해 사람을 읽는 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김 작가는 "영화든, 경영이든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해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지난 2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31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김경찬 작가가 '스토리텔링 이론으로 배우는 설득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ESG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서며 2026년 ESG 경영 기본계획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ESG 성과 점검…지속가능경영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SG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 경영 기본계획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이행점검에서는 탄소중립 대응과 안전·보안 관리, 지역사회 상생, 투명·청렴경영 등 ESG 전 분야에서 주요 과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자체의 ESG 경영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ESG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중진공은 이날 '2025 ESG 경영보고서'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 제정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처음 적용해 구성과 공시 항목을 체계화했다. 중진공 고유사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ESG 지원성과를 별도 테마로 구성하고,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참고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대응체계 및 주요 활동도 소개했다.

송대웅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

관세 등 위기 속 미래 준비 '한 마음'…오늘까지 찬반 투표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광주공장 화재사고와 관세 등 국내외 위기 속에서 미래 준비에 한 마음 한 뜻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1일 교섭에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금 3% 인상, 경영성과 격려금 550만원, 2018년 특별합의 이행 격려금 250만원, 근로장려금 50만원, 미래 경쟁력 강화 공동 노력 등이다.

특히 경영성과 격려금 운영에 있어서 각종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대를 마련, 이를 통해 노사가 보다 건설적인 교섭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국내공장 운영 및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시장의 확대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생산성 향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설비 경쟁력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근무질서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또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생계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먼저 화재로 인한 휴업자의 안정적인 근로 및 원활한 업무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정년 등 공석 발생 및 양성 기간을 고려해 올해 내 합의를 통해 직무교육과 전환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량 달성에 따른 특별 포상 제도를 운영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능률 향상을 높이고, 다양한 노사 교류 프로그램과 스킨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23~2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 최종 합의 여부가 결정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여러 현장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가운데 과거 화재를 딛고 미래 준비를 위해 노사가 물리적 충돌 없이 공감대를 찾았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잠정합의는 금호타이어의 경쟁력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 '올스톱'…10년 만에 전면 파업

임협 난항 누적 파업 60시간…매출 차질 2조3000억 넘어설 듯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2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평소 오전 6시 45분에 업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오후조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이날 하루 전부 멈췄다.

오전·오후조가 각 8시간 파업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라인은 이날 16시간 가동 중단된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3만9000명 가량이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올해 5월 6일 교섭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6시간 부분 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나 8시간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16년 임협 당시 하루(9월 26일) 전면 파업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전면 파업하는 것이다.

이날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났다. 생산라인이 멈춘 것은 그 배인 120시간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200대에 달하고,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노조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서 차질은 더 쌓일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임협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3가지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